

## 《龍圖耳錄》의 제재유형 분석

朴 明 眞\*

<目次>

I. 緒論	III. 《龍圖耳錄》의 ‘공안-무협’ 제재유형
II. ‘공안-무협’ 제재유형의 형성과 발전	V. 結論

### I. 緒論

《龍圖耳錄》은 清代에 ‘《三俠五義》 계열소설’ 중 가장 이른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包公-俠客 이야기’의 기본적인 틀을 갖춘 章回小說 작품이다. 따라서 《삼협오의》 계열소설 연구에 있어 《용도이록》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이미 제기된 바 있다.<sup>1)</sup>

소설사 연구의 측면에서 볼 때, 《삼협오의》 계열의 작품은 주로 ‘公案俠義小說’ 혹은 ‘俠義公案小說’로 분류되어, 그 제재적 특성이 공안과 협의의 ‘合流’로 간주되고 있다.<sup>2)</sup> 그러나 최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侯

\* 嶺南大學校 中國言語文化學部 副教授

- 1) 박명진, <《龍圖耳錄》의 소설화 과정과 창작 특징>, 《동아인문학》 제23집, 2012, 36-38쪽.
- 2) 《三俠五義》를 ‘공안협소설’ 혹은 ‘협의공안소설’로 분류하고 있는 대표적 소설 연구서는 다음과 같다. 齊裕燾 主編, 《中國古代小說演變史》, 敦煌文藝出版社, 1994, 521·535쪽. 侯忠義 著, 《三俠五義系列小說》, 遼寧教育出版社, 1993, 9쪽. 曹亦冰 著, 《俠義公案小說史》, 浙江古籍出版社, 1998, 176-178쪽.

忠義 선생은 기존의 합류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제재의 ‘混類’ 현상에 주목하여 소설 유형의 인식에 있어 반드시 ‘중요한 부분을 취해야(取其重)’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sup>3)</sup> 《삼협오의》가 이미 공안에서 무협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무협소설로 보는 주장들도 있다.<sup>4)</sup> 국내에서도 《삼협오의》의 장르에 대해 그 서사 특징에 주목하여, 《삼협오의》가 근대 무협소설 장르의 전 단계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sup>5)</sup> 《삼협오의》 계열소설은 《施公案》 등과 함께 중국 고대 백화소설사에서 하나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며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 작품에 대한 제재유형 형성과정과 그 유형적 특징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삼협오의》가 소설사에서 《삼협오의》 계열소설 중 가장 중요한 작품에는 틀림없지만, 청대 石玉崑의 ‘石韻書’와 《삼협오의》 사이에 《용도이록》이 존재하며, 《삼협오의》 계열소설 중 가장 이른 장회소설임을 고려할 때, 《용도이록》의 중요성 역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청대에 이르러 ‘포공-협객 이야기’는 說唱의 영역에서 먼저 대중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석옥곤의 설창본 ‘龍圖公案’(‘包公案’)을 통해 宋代 이후 민간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던 ‘포공 이야기’에 ‘三俠과 五義의 이야기’가 결합된 형태의 이야기가 널리 전파되었고, 이후 《용도이록》이라는 책으로 정리되어 처음으로 장편소설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다시 光緒 5년(1879) 《忠烈俠義傳》이라는 제목으로 활자본으로 간행되었고, 光緒 8년(1882) 重刊되면서 《삼협오의》로 서명이 바뀌었다.<sup>6)</sup> 이러한 과정

3) 侯忠義·王健樁, <近代俠義、公案小說“合流”說質疑>, 《明清小說研究》 2006年 第4期, 7-9쪽.

4) 黃克, <娛心 勸善—《忠烈俠義傳》的再認識>, 《文史知識》 2006年 第1期, 7쪽. 程毅中, <從《三俠五義》、《小五義》看清代的話本小說>,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 2006年 第2期, 161쪽.

5) 유경철, <《삼협오의》 연구: 무협소설 장르의 전(前) 단계(段階)적 특징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제61집.

6) 《용도이록》과 《삼협오의》의 성서 과정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논문을

을 살펴보면, 《용도이록》은 《삼협오의》 계열소설의 연구와 관련하여 판본, 제재유형, 서사특징 등의 연구에 있어 결정적 단서들을 제공할 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용도이록》의 제재유형 형성과정과 그 유형적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삼협오의》 계열소설의 유형적 특징에 대한 연구에 있어 하나의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II. ‘공안-무협’ 제재유형의 형성과 발전

《삼협오의》 계열소설은 기존의 ‘포공 이야기’를 계승하여 청대에 등장한 또 하나의 새로운 ‘포공 이야기’로, 사실적인 현실생활의 묘사 속에서 살아숨쉬는 협객들의 모습을 생동감 넘치게 그려냄으로써 후대 무협소설의 창작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작품이며, 이로 인해 이 작품은 중국 고대 소설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삼협오의》는 ‘포공의 공안이야기’라는 전통적인 패턴을 계승하면서, 다시 이것을 ‘포공-협객의 무협이야기’라는 새로운 패턴으로 발전시킨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재유형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삼협오의》는 그 제재의 독특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논의가 전개되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 이 작품은 중국 고대백화소설의 제재유형의 형성과 발전에서 드러나는 보편적인 특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삼협오의》 계열소설의 형성은 說話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포공-협객의 무협이야기’ 중 설창의 영역에서 장편소설의 영역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용

참고할 수 있다. 苗懷明, <《三俠五義》成書新考>, 《明清小說研究》 1998年 第3期. 王湘華, <《三俠五義》版本流變>, 《古典文學知識》 2006年 第4期. 程毅中, 앞의 논문. 魯德才, <四種《三俠五義》說唱本與《龍圖耳錄》的異同辨證>, 《文學遺產》 2007年 第2期 등.

도이록》이다. 따라서 《삼협오의》 계열소설의 제재유형의 특징을 파악함에 있어, 《용도이록》을 통해 제재유형의 형성 과정과 그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고대백화소설의 내재적 발전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용도이록》은 宋代 소설화본의 특징을 계승하고 있으며, 청대에 이르러 독특한 ‘공안-무협’ 제재유형의 발전을 가져온 작품이라 할 수 있다. ‘公案小說’과 ‘武俠小說’은 중국 고대 백화소설사에서 각각의 영역을 형성하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또 서로 불가분의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 두 제재유형은 송대부터 설화의 영역에서 이미 기본적으로 형성되었다. 두 유형은 서로 경계를 넘나드는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공존하면서 동시에 각자의 독립적인 영역을 유지하고, 때로는 상대의 유형적 특징을 흡수하여 자신의 유형적 특징에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였다.

송대에는 시민문화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등장한 민간기예의 일종인 ‘설화’의 한 영역으로 ‘小說’이 있었고 그 가운데 ‘說公案’과 ‘說鐵騎兒’가 있었다. 이 두 유형이 바로 공안소설과 무협소설의 발전과 관련이 깊다고 말할 수 있다. ‘설화’의 분류는 여전히 정론을 얻지 못하고 있지만,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설공안’은 ‘朴刀’·‘杆棒’·‘發迹變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안소설 및 무협소설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설철기아’는 ‘武’의 요소로 인해 역시 무협소설의 발전과 관련이 깊다.<sup>7)</sup> 徐斯年 선생은 송·명 화본소설의 무협류 이야기에는 다음의 7가지 요소가 담겨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첫째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돕게 되는 이야기와 생명보다 정의를 중시하고 불의를 제거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이야기, 둘째는 우정·신의·보은·복수의 이야기, 셋째는 호협의 발적변태 이야기, 넷째는 俠盜 이야기, 다섯째는 협의와 관련된 공안이야기, 여섯째는 협의와 관련된 신선·도술의 이야기, 일곱째는 협의와 관련된 혼인 이야기이다.<sup>8)</sup> 이러한 분석은 무협류 소설에 대한 제재유형 분석에 있어 훌륭한 기

7) 박명진, <宋元 小說話本の 公案·俠義 類型>, 《중국소설논총》 제20집, 2004, 71-71쪽.

준을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무협류 작품의 창작에 있어 이러한 패턴은 고대백화소설의 창작에 있어 청대에까지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孫楷第 선생은 《中國通俗小說書目》 卷四 「明清小說部乙」에서 제재유형을 중심으로 명·청 시기 백화소설을 분류하고 있는데, ‘설공안’에 《水滸傳》, 《용도이록》, 《충렬협의전》, 《시공안》 등의 작품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는 ‘설공안’에는 ‘俠勇’과 ‘精察’의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sup>9)</sup> 이것은 공안제재와 무협제재가 근본적으로 태생을 함께 하면서 분리하기 어려운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용도이록》은 형식과 내용면에서 모두 송·원 시기 설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화본소설 형태의 ‘설화체’ 장편소설이라 할 수 있다. 명대에는 ‘포공 이야기’가 단편의 백화공안소설을 수록한 ‘專集’의 형식으로 성행하였으며, 《百家公案》과 《龍圖公案》 등의 작품집을 내놓았다. 송·원·명을 거치면서 설화예술이 꾸준히 이어졌고, 설화의 영역에서 ‘포공 이야기’는 ‘삼협오의 이야기’를 흡수한 설창본 ‘용도공안’을 형성하였다.

俞樾은 《삼협오의》의 형성과정에 기인하여 《七俠五義傳·序》에서 “如此筆墨, 方許作平話小說.(이러한 묘사는 평화소설이라 할 만하다.)”<sup>10)</sup> 라고 평하며, 이 작품을 ‘平話小說’이라고 하였다. 魯迅의 분석에 의하면 《시공안》, 《삼협오의》 등을 잇는 협의소설은 “송대 화본의 맥을 그대로 이어받아, 평민문학 칠백 년의 역사가 다시 부활한 것이다.(正接宋人話本正脈, 固平民文學之歷七百餘年而再興者也.)”<sup>11)</sup>라고 하였다. 정의중 선생은 청대에 이르러 설서인에 의해 포공의 이야기가 장편의 설창으로 등장한 것은 아마도 명대 詞話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보여지며, 鼓詞로 불

8) 徐斯年 著, 《俠의 踪跡—中國武俠小說史論》, 人民文學出版社, 1995, 71-72쪽.

9) 孫楷第, 《中國通俗小說書目》, 作家出版社, 1957, 181쪽.

10) <重編《七俠五義傳》序>, 石玉崑 述·俞樾 重編·林山 校訂, 《七俠五義》, 寶文堂書店, 1980년, 1쪽.

11) 魯迅 著, 《魯迅全集》 第9卷, 《中國小說史略》, 人民文學出版社, 1996, 278쪽.

리기도 했다고 분석하고 있다.<sup>12)</sup> 석옥곤의 설창을 ‘耳錄’하여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인들의 창작이 가미되어 장편소설 《용도이록》이 탄생하였고, 《삼협오의》의 전신이 되었다. 《용도이록》의 완성은 설창본을 듣고 보충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다 들을 수 없었으므로 여러 사람이 듣고 기록한 것을 모아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작품은 청대 설화 예술이 유행하던 시기 생겨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용도이록》은 명대의 백화 단편공안소설과는 아주 다른 새로운 화본형식을 띤 장편소설이며, 제재 방면에서도 새로운 특징을 보여준다. 《용도이록》은 명대 백화 단편공안소설을 무협소설로 전환시킨 것이라 보기도 어려우며, 또 공안소설이 무협소설로 발전해가는 과정 중 과도기적 형태로 나타난 작품이라 보기도 어렵다. 《용도이록》의 형성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바로 송·원 시기 소설화본에서 이미 드러난 제재유형의 특징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공안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이미 무협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공안-무협’ 제재유형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용도이록》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이러한 제재유형의 형성과정 및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Ⅲ. 《龍圖耳錄》의 ‘공안-무협’ 제재유형

청대에 ‘포공-협객 이야기’가 설창을 통해 형성되어 전파되다가 다시 소설의 형식으로 전환되는 유통 과정을 고려할 때, ‘포공-협객 이야기’는 이미 독자들의 주목을 끌만한 소설적 요소를 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 《용도이록》은 ‘이록’의 과정에서 현장감을 살린 설서인의 즉흥적 내용이 가미되고 또 편집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작업하면서 석옥곤이 들려주었던 원래의 이야기와는 차이가 나겠지만, 분명 《삼협오의》 계열소설의 제재유형에 대한 전체적

12) 程毅中, 앞의 논문, 161쪽.

윤곽을 그려내는 데 가장 큰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俞樾의 말처럼 《삼협오의》 계열소설을 ‘평화소설’로 간주할 때, 《용도이록》은 명·청 시기 단편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화본인 ‘평화’에서 소설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가장 원류적 면모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용도이록》에서는 한편으로는 공안·무협류 소설화본의 전통을 계승한 글쓰기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장편화에 따른 새로운 글쓰기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글쓰기 특징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용도이록》의 제재유형 상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 1. 공안·무협류 소설화본의 계승

《용도이록》은 제재의 특징에서 볼 때, 송·원의 공안·무협류 소설화본의 창작 특징을 계승하였다. 특히 무협류 소설화본의 대표적 특징들을 계승·발전시킨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

#### 1) 발적변태를 담은 영웅의 전기

송·원의 무협류 화본소설의 한 특징은 영웅전기 유형을 계승하여 호협 인물의 사적과 발적변태를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을 《용도이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용도이록》은 포공의 탄생에 관한 묘사로 시작된다. 제1회-제7회는 포공의 탄생과 혼인 등 신변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포공의 전기적 이야기는 이미 명대의 백화소설에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지만, 《용도이록》에 와서 더욱 풍부해지고 전기적 색채가 강화되었다. 또한 그의 명판결에 협객의 이야기가 결합되면서 더욱 현실적이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이야기는 작품 전체의 특성을 파악하는 단서가 되어 주기도 한다. 도입부에서 묘사하고 있는 포공의 출생은 영웅전기적 요소를 담고 있는데, 끊임없이 포공을 해치려는 包海·李氏 부부와 고난에 처한 포공을 계속 도와주는 包山·王氏 부부의 대립을 통해 인물의 전기적 색

채를 더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포공이 다양한 인연으로 얻게 되는 사물들 즉, 영험한 효력이 있는 古鏡, 星主만이 사용할 수 있는 遊仙枕, 李后의 시력을 회복시키는 등 신비한 능력을 지닌 古今盆, 황제에게 하사받은 龍·虎·狗의 御札三道(‘劍刀’) 등은 장편화된 포공의 이야기를 엮어주는 매개이기도 하면서 전기적 색채를 더욱 짙게 만들어 주는 장치들이다. 포공의 스승 寧公은 그에게 包拯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字를 文正이라고 붙여주었으며, 그 의미에 대해 “여기에 담긴 뜻은 포공이 훗날 반드시 재난에 빠진 백성을 구해내어 세상을 구하는 신하가 된다는 것이다. 필획의 모양으로 논한다면 포공이 승상의 재주를 가졌다는 말이다.(其寓意, 言包公將來必能拯民於水火之中, 以爲濟世之臣; 若論筆劃, 言包公有丞相之才.)”<sup>13)</sup>라고 하였다. 또 자에 대하여 “또한 자는 문정인데, ‘문정’ 두 글자를 합치면 국정의 ‘정’이다. 이것은 훗날 반드시 국정을 맡게 된다는 말이다.(易且字文正, ‘文正’二字合起來乃國政之‘政’, 言將來必堪任國政.)”<sup>14)</sup>라고 하였다. 이처럼 포공의 이름에서 그의 발적변태를 예상할 수 있다. 포공은 隱逸村에서 吏部天官 李大人 딸의 퇴마를 도운 후 鳳陽府 定遠縣 知縣이 되고 開封府로 와서 대인의 딸과 혼인을 하면서 그녀의 고금분을 얻게 되어 발적변태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승상 王苞가 황제가 꿈에서 본 포공의 얼굴을 그린 초상을 받아 大相國寺에서 포공을 발견하고, 포공이 황제 仁宗을 만나 玉宸宮에서 邪氣를 잠재울 기회를 얻으면서 발적변태를 이루게 된다. 제21회-제28회는 포공의 ‘공안이야기’가 전개되는데, 포공의 영웅적 인물 형상을 한층 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포공은 협사 展昭와의 인연을 계기로 이후 많은 협객들의 도움을 받으며 점차 현실적인 청관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다음으로, 顏查散은 《용도이록》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관리인물이다. 그는 청관인물로 후반부 협객의 무협이야기에서 축이 되는 인물이라 할

13) [清] 石玉崑 述, 《龍圖耳錄》, 上海古籍出版社, 1981, 25쪽.

14) [清] 石玉崑 述, 같은 책, 25쪽.

수 있다. 《용도이록》 제32회-제39회는 안사산의 발적변태 이전 그가 겪게 된 인생역정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안사산은 어려운 처지였으나 친구 金必正의 도움을 받아 과거를 보러 떠날 수 있었고, 과거를 치르기까지 매번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白玉堂이 그를 돕는다. 안사산은 柳金蟬과의 혼인문제를 둘러싸고 馮鈞衡에 의해 금선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게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 안사산은 백옥당의 도움으로 포공을 만나게 된다. 포공이 안사산의 누명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해주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다. 이러한 기이한 인연은 안사산이라는 인물의 전기성을 부각시킨다. 제46회는 안사산이 공안사건에 휘말리는 역경을 겪은 후, 마침내 會試에서 장원에 급제하는 발적변태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제85회-제120회에서 안사산은 협객의 활약 아래 君山을 점거하고 陳起望을 평정하여 양양왕을 진압하는 《용도이록》 마지막 이야기의 중심 축에 위치한다. 이와 같이 《용도이록》에서는 특이한 인생역정을 통해 발적변태하는 안사산이라는 인물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는데, 그는 포공보다 현실세계 속 청관인물에 한 걸음 더 다가가 있다.

마지막으로, ‘삼협오의’는 《용도이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협객인물이다. 《용도이록》은 삼협오의의 뛰어난 무공과 발적변태를 묘사하면서, 포공의 공안이야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협객의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포공은 더 이상 모든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 현실세계 속의 인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전환을 가능하게 한 인물이 바로 ‘삼협’과 ‘오의’로 대표되는 협객, 실제로는 北俠·南俠·雙俠·智化·沈仲元·艾虎 등 ‘칠협’과 盧方·韓彰·徐慶·蔣平·白玉堂 등 ‘오의’이다. 《용도이록》의 협객이야기는 발적변태를 이룬 호협인물에 관한 전통적인 무협이야기를 계승하고 있다. 《용도이록》에서는 무예의 신공이 뛰어난 호협인물 혹은 지략이 뛰어난 협객인물을 그려내고 있다. 이들은 청관과의 인연을 통해 발적변태를 이루고 ‘忠義’를 위해 싸우는 인물들이다. 이들의 재주라 할 수 무예신공과 발적변태의 이야기는 바로 송·원 소설화본 중 무협류 소설화본의 명맥을 그대로 계승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용도이록》에 등장하는 협객의 이야기는 송·원·명 백화 단편 소설 중 무협소설과 장편 무협소설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수호전》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용도이록》이 협객인물의 사적과 발적변태 및 무공과 재주 등 다양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전소와 백옥당에 대한 대비 묘사는 작품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전소와 백옥당의 대결 이야기를 통해 편집자는 통속 소설이 추구하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권선징악’의 내용까지 담아내었다.

또한 ‘공안-무협 이야기’에서 ‘불의를 제거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除暴安良)’ 이야기는 공안제재와 무협제재의 공통분모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용도이록》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청관과 협객은 바로 독자들이 자신들의 이상을 기탁할 수 있는 ‘공안-무협 이야기’ 속 영웅인물이다.

여기에서 《용도이록》이 전통적인 영웅전기와 발적변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안·무협류 소설화본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제재유형의 내재적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전기적 색채를 띠는 영웅인물의 이야기가 점차 현실세계 청관과 현실세계 협객의 발적변태 이야기로 변하였다는 점과 이러한 이야기를 장편소설로 완성시켰다는 점에서 그 발전적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 2) 공안 요소를 흡수한 무협이야기

《용도이록》은 설창 영역에서 완성된 새로운 이야기 즉, ‘협객의 이야기’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공안을 흡수한 무협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송·원 소설화본 공안·무협류 제재유형의 특징을 계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송·원 소설화본 중 《용도이록》의 제재적 특성에 가장 접근해 있는 작품은 바로 무협류 소설화본 《宋四公大鬧禁魂張》(《喻世明言》 제36권)이다. 이 작품은 包公이 開封府에 등장하기 이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盜俠과 盜賊들이 출몰하여 腐敗한 官

府와 대립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용도이록》은 《宋四公大鬧禁魂張》의 제재적 특성을 충분히 흡수하고 한층 더 발전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송·원 소설화본에서는 특히 송사공 등 협도들의 절도신공에 대한 묘사가 아주 흥미로운데, 《용도이록》에서도 이러한 묘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제40회에서는 南俠 전소와 錦毛鼠 백옥당의 대결이 흥미롭다. 남협이 ‘猫’라는 호를 얻게 된 것도 “황제께서 그의 기예가 고양이보다 교묘한 것을 알고(聖上止知他的技藝巧於猫)”<sup>15)</sup> 지어준 것이라는 백옥당의 말을 통해 전소 역시 무예신공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불만을 가진 교만한 백옥당은 자신의 재주를 뽐내고 전소를 반드시 이기고자 한다. 제39회에서 相府에 침입한 백옥당이 전소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검을 대결하는 장면은 아주 흥미진진하며, 백옥당이 돌맹이를 이용해 주의를 분산시키는 방법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시킨다. 《용도이록》에서는 이 대목에서 설서인의 평어가 삽입되었다. “기예로 말하자면 교묘하고 여러 가지를 통달하고 있어 둘 다 대단하다 할 수 있는데, 마음 씀씀이는 하나는 충성스럽고 하나는 각박하여 서로 다른 마음이다.(論技藝, 巧妙多通, 同歸一路; 講心思, 忠誠刻毒, 另有別腸.)”<sup>16)</sup> 라고 하였다. 편집자는 한편으로 전소와 백옥당의 기예가 모두 뛰어난 것을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 두 사람의 심성이 서로 다를 것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삼협오의》에서는 이러한 설서인의 개입 부분이 생략되어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서 《용도이록》의 서술이 《삼협오의》에 비해 화본의 특성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40회에서는 백옥당의 東京 입성을 계기로 ‘五鼠’가 모두 동경에 모이는 이야기를 서술한다. 또한 이 대목에서 白面判官 柳靑이 오서와 함께 太師 龐吉의 외손으로 음탕하며 백성의 고혈을 짜내고 있던 악덕 太守인 孫珍이 방길에게 보내는 생일선물을 탈취할 계획을 세우는 이야기가 삽입된다. 천량의 황금은 협객들

15) [淸] 石玉崑 述, 앞의 책, 435쪽.

16) [淸] 石玉崑 述, 같은 책, 426쪽.

의 손에 들어가고, 손진의 뇌물사건은 포공에 의해 파헤쳐진다. 게다가 제 41회에서 백옥당은 황궁으로 들어가 御園을 소란스럽게 하고 ‘三寶’를 훔친다. 제54회-제56회에서 백옥당은 전소가 자신이 훔친 ‘삼보’를 다시 훔쳐 가면 개봉부로 따라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전소는 백옥당의 심복 白福의 뒤를 밟아 구결의 문을 뚫고 삼보를 되찾는다. 이처럼 ‘오서가 동경을 시끄럽게 만든 이야기(五鼠鬧東京)’와 백옥당과 전소가 ‘삼보’를 두고 벌이는 흥미진진한 무공 대결은 ‘송사공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 이 외에도 《용도이록》에는 처마 위를 날아다니고 벽 위를 달러가는(飛檐走壁) 등 협도가 재주를 뽐내는 묘사들이 자주 등장한다. 특히, 제12회에는 전소의 百寶囊 속 보물 가운데 如意縑라는 로프가 등장한다. 전소가 이 로프를 이용해 龐崑의 화원에 침입하는 장면은 현대 도둑의 기술을 보는 듯하다. 이 외에도 제115회에서는 장평이 류청의 머리장식을 훔치는 흥미진진한 장면 묘사를 통해 무예신공이 뛰어난 협도의 잔재주를 흥미롭게 묘사하였다.

또 다른 공안의 요소를 흡수한 무협이야기로는 바로 온갖 악행을 자행하던 총관 馬朝賢 집단과 협객의 대결이다. 제72회에서 태수가 된 倪繼祖는 심복 倪忠과 함께 杭州로 가던 중 翟九成을 만난다. 예태수는 적구성으로부터 마조현의 조카인 馬強이 적구성의 외손녀 錦娘을 납치한 사건의 전말을 듣고 고소장을 써주는데, 여기에서 마조현 집단과 협객이 집요한 대결이 시작된다. 이 사건에 대한 해결의 열쇠를 가진 핵심인물은 바로 북협 歐陽春이다. 북협은 도적에게 잡혀온 朱貞淑을 구한 후, 지화와 애호의 도움으로 招賢館을 탈출하려다 붙잡힌 예태수를 다시 구하게 된다. 마강이 마조현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이, 북협은 지화의 내응으로 마강 부부를 잡아 관으로 압송한다. 북협은 姚成(陶宗의 다른 이름)에 의해 강도로 관에 고발당하고, 예태수는 마조현에 의해 고발당한다. 제81회에서 지화는 마조현 집단을 무너뜨리기 위해 엄청난 계락을 꾸민다. 이것은 우선 지화가 황성의 보물창고에서 ‘九龍珍珠冠’을 훔쳐 쌍협에게 넘기고, 다시 쌍협이 구룡관을 마강의 집 감실에 숨긴 후, 결정적으로 애호가 마조현이 마강의 집

에 구룡관을 숨기는 일을 도왔다고 거짓 자백을 한다는 계략이다. 이 장면에서 작품은 협도 행위에 대해 아주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신비감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다. 大理寺의 會審에서 애호가 대담하게 襄陽王 趙爵의 거사를 거론하자, 杜大人은 면밀히 조사한 후 복협의 무고를 인정하고, 마강의 자백 문서를 받아낸 후 마강과 마조현을 참수시킨다.

이 외에도, 《용도이록》에는 송·원 소설화본의 전통을 계승하여 공안 요소를 흡수한 무협이야기들이 대거 등장한다. 제44회에서 노방이 花花太歲 嚴奇를 때려죽이자, 포공은 그의 행위를 의협행위라 하여 벌하지 않고, 엄기의 하수인인 史丹에게 그 죄를 전가하여 노방 사건을 해결한다.

여기에서 《용도이록》이 송·원 소설화본의 전통을 계승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송사공 이야기’의 결말에서는 “包龍圖 상공이 府尹이 되면서 .....처음으로 官吏가 좋아야 비로소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알았다.(虧殺包龍圖府尹, .....始知官好自民安.)<sup>17)</sup>”라고 하여, 淸官에 의해 사회가 안정을 되찾는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용도이록》에서는 포공과 협객이 서로 협력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협객인물이 도적이 아닌 충의의 인물이 되는 결말로 변화를 가져왔다.

## 2. 장편화에 따른 새로운 방향 모색

《용도이록》은 무협이야기의 창작에서 송·원 소설화본과 이후 명대 화본소설의 풍격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화본소설은 체제 면에서 단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용도이록》은 이미 장편화를 완성했다. 이러한 장편화의 과정에서 《용도이록》은 제재유형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추구하고 내적 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胡適이 말한 것처럼 《삼협오의》는 명대의 雜錄 형식의 《龍圖公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작품(一部完全不

17) 馮夢龍 編, 許政揚 校注, 《喻世明言》, 人民文學出版社, 1994, 584쪽.

同的新書)”<sup>18)</sup>이며, 이러한 새로움은 《용도이록》에서 이미 형성되었다.

1) ‘講史’의 틀: 정치 집단 간의 대립 구도

《용도이록》이 장편의 ‘공안-무협 이야기’를 완성했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하다. 《용도이록》은 이러한 장편화를 위해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였는데, 작품의 배경으로 하나의 큰 역사적 테두리를 완성하였다. 魯迅이 《중국소설사략》에서 《용도공안》(《용도이록》)은 “구조가 엄밀하고 시작과 끝이 하나로 통한다.(組織加密, 首尾通連.)”<sup>19)</sup>라고 했던 평가를 통해, 《용도이록》이 시작과 끝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장편화를 완성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호적은 《삼협오의·서》에서 “《삼협오의》는 오히려 몇몇 협사들이 주체가 되고 있으며, 포공의 이야기는 맥락에 불과하며 배경이 되어주고 있다.(《三俠五義》卻用幾位俠士作主體, 包公的故事不過線索, 做個背景.)”<sup>20)</sup>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아주 타당한 분석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용도이록》에서 이미 완성되었다.

《용도이록》은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에서 아주 비중이 큰 정치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시작 부분의 ‘狸猫換太子 이야기’와 ‘龐太師 집단의 이야기’이며, 마지막 부분의 ‘君山을 평정한 이야기(定君山)’이다. 청대 北京의 통속소설 간행과 관련된 통계를 살펴보면 ‘영웅전기’와 ‘역사 연의’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공안협의’, ‘才子佳人’ 등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sup>21)</sup> 설서에서 일반 대중들이 즐겨 듣고 보는 영웅전기와 ‘강사’의 요소는 공안제재와 협의제재에서도 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용도이록》 역시 ‘공안-무협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강사’를 모방한 역사적 틀을 원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1회-제28회까지

18) 胡適 著, 《胡適古典文學研究論集》, 上海古籍出版社, 1988, 1195쪽.

19) 魯迅 著, 앞의 책, 272쪽.

20) 胡適 著, 앞의 책, 1181쪽.

21) 汪燕崗, <試析清代北京通俗小說的出版與說唱業的關係—以俠義公案小說的形成爲例>, 《北京社會科學》 2012年 第5期, 70쪽.

의 포공의 공안이야기는 이러한 역사적 틀을 만드는 좋은 재료가 되어주었다. ‘삼행이와 태자를 바꿔친 이야기(狸猫換太子)’에 대해 《용도이록》에서는 이후 세상에 널리 전해진 포공과 관련된 이야기 중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20회에서 “지금의 국모가 원래 이씨지 유씨가 아님을 알게 된 것은 포공이 조사하여 밝혀낸 덕분이다. 현재 포공은 이미 용도각의 재상이 되었다.”라는 새로운 소식이 도처에 퍼지고 있다. (‘當今國母原來姓李, 却不姓劉, 多虧了包公訪查出來. 現在包公已入閣拜相.’ 當做一件新聞, 各處哄傳.)”<sup>22)</sup>라고 기록함으로써 역사적 배경을 마련하는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에 실제로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정치적 이야기로 시작하고 끝을 맺음으로써, 이 작품이 장편에 대한 기본 구도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용도이록》의 전체 골간을 이루고 있는 역사적 틀 속에는 정치집단 간의 대립 구도가 두드러진다. ‘이묘환태자 이야기’는 청관 포공과 郭槐의 대립을 서술하고 있다. 《용도이록》의 초반부 이야기에서는 제1회에서 ‘이묘환태자’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을 해결할 청관 포공이 등장한다. 제7회에서 포공은 玉宸宮에서 楊忠의 몸을 빌린 寇珠의 원혼에게서 ‘이묘환태자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된다. 제15회-제19회에서 포공은 곽회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지략으로 ‘이묘환태자 사건’을 해결한다. 이후, 제23회에서는 포공이 李娘娘 사건을 해결한 것을 기념하여 황제가 恩科를 내리게 되고, 이 과거로 인해 范仲禹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또 제40회-제41회에서는 곽회의 조카 郭安이 황궁 내원의 總管이었는데, 陳林에게 원한을 품고 항상 그를 제거할 계책을 궁리하다가 백옥당에게 피살당하는 ‘이묘환태자 사건’의 뒷이야기도 서술하였다. 이 뒷이야기를 계기로 백옥당을 비롯한 ‘오서’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여기에서 ‘이묘환태자 이야기’라는 골간이 《용도이록》의 전반부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묘환태자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龐太師 집단과의 대립’이 동시에 삼

22) [清] 石玉崑 述, 앞의 책, 216쪽.

입된다. 제8회부터 방태사 집단의 악행이 드러나고 ‘포공-협객’ 집단과 대립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四大王 王朝·馬漢·張龍·趙虎가 포공을 도와 龐崑을 혼내주고, 제11회-제15회에서는 진소가 포공을 암살하려는 방곤 일당의 계획을 막아내고, 포공은 ‘龍頭劍’으로 방곤의 허리를 잘라 두 동강 낸다. 이러한 생생한 장면묘사를 통해 포공의 ‘鐵面無私’의 경이로움을 부각시켰다. 제20회-제21회에서는 진소가 龐吉이 나무인형으로 포공을 해하려는 계획을 막아내고, 포공은 방길 집단의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

《용도이록》은 宗室 襄陽王 趙爵, 國丈 방길, 國舅 龐昱, 조정대신 馬朝賢 등 부패한 권세가의 사건을 묘사하는 가운데 백성들의 참혹한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평화’의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고대 소설화본의 창작 특징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묘환태자 이야기’로 시작된 《용도이록》은 전반부에서 포공과 협객(남협과 오의)이 결합된 집단과 관회와 방태사 등의 권력 집단이 대립하는 구도를 형성하였고, 이것은 ‘강사’의 틀을 공고히 다져주었으며, 작품의 장편화의 골간이 되어주었다.

《용도이록》의 후반부에서는 ‘정군산 이야기’가 중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데, 제84회-제120회까지 정군산과 陳起望의 평정과 양양왕의 반란 진압이라는 정치적 사건을 중심으로 ‘강사’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특히 협객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무협소설의 요소가 강화되었다. 여기에서는 거대해진 ‘관리-협객’ 집단과 藍驍, 鍾雄과 정립하며 세력을 형성한 양양왕 집단과의 대립이 두드러진다. 《용도이록》에서 관리와 협객의 협력이 가능해진 것은 황제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어진 사람을 구하는 것에 목말라 있는(求賢若渴之意)”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이었다. 양양왕 세력의 위협적인 강인함과 견고함은 바로 백옥당의 죽음을 가져온 沖霄樓의 ‘八卦銅罔陣’으로 상징된다. 그러나 결국 관리-협객 집단은 조정의 지휘 아래 반란을 일으킨 양양왕 집단을 진압한다. 이 이야기는 지화의 작전 지휘력, 북협의 무공, 장평의 재주를 비롯해 특히 협객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황제는 양양왕의 일과 물난리로 근심하다

가, 포공의 추천으로 안사산을 巡按으로 파견해 치수사업을 감독하게 한다. 여기에서 관리-협객 집단의 핵심 관리 인물로 안사산이 자리하게 된다. 이에 백옥당은 赤堤墩에서 가짜 水怪 사건을 해결하고, 장평은 水賊을 평정한다. 덕분에 안사산은 적제돈을 점거하고 公孫策의 보좌를 받으며 치수사업을 벌인다. 이처럼 ‘정군산 이야기’의 도입부는 안사산의 치수사업으로 시작되고, 제87회-제97회까지는 施俊의 사건, 李平山의 사건 등이 삽입되고, 제94회에서는 金輝가 양양태수가 되면서 또 한 명의 관리가 핵심적 위치에 자리하게 된다. 제98회부터 협객들의 활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복협이 등장하여 남효와 대결을 벌이고 남효를 제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사자가 특별히 “다른 책과는 완전히 다르다.(迥與別書不同.)”<sup>23)</sup>라고 평가할 만큼 뛰어난 무협 고수들의 대결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내었다. 제100회 이후 작품은 본격적으로 양양왕과의 대결을 묘사한다. 양양왕이 금태수를 方紹와 심중원을 동원해 암살할 계획을 세우자, 심중원은 양양왕에게 실망하여 뜻을 달리하게 되었고, 지화는 방초를 잡아 금태수의 안전을 지킨다. 제105회에서 장평이 雷震과 雷英의 도움을 얻게 되고, 다시 양양왕이 鄧車와 심중원을 시켜 금태수를 암살하려 하자, 이번에는 심중원이 내부에서 한창을 돕고 등차를 제압한다. 제110회부터 지화의 작전력이 빛을 발하는데, 지화는 변장을 하고 종옹의 근거지로 가서 다른 협객들을 모두 이곳으로 집결시킨다. 결국 지화는 종옹을 설득하고, 종옹은 군산을 점거하고, 여러 협객들은 양양왕 진압에 나서게 된다. 《용도이록》의 이야기는 완벽한 결말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여운을 남기며 여기에서 끝이 난다.

《용도이록》은 전반부에서는 포공 이야기의 전통을 계승하여 공안소설의 밑그림이 깔려 있지만, 점차 후반부로 가면서 무협소설의 요소가 극대화 된다.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정군산 이야기’를 골간으로 여러 다양한 공안-무협 이야기를 삽입하여 연결함으로써 작품의 장편화를 완성하였다.

23) [淸] 石玉崑 述, 앞의 책, 1047쪽.

## 2) 장편 속 ‘공안이야기’와 ‘훈인이야기’

제재의 측면에서 볼 때, 《용도이록》은 이야기의 장편화 과정에서 이미 전체적으로 무협소설의 틀을 완성하였고, 그 틀 안에서 다양한 공안이야기를 흡수하고 있다. 이것은 장편화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소설의 내적 발전이라 말할 수 있다.

노신은 《중국소설사략》에서 《삼협오의》 계열소설이 “평화의 분위기를 강하게 느낄 수 있다.(甚有平話習氣.)”<sup>24)</sup>라고 평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용도이록》에서 이미 드러나는데, 장편의 무협이야기 속 공안이야기들은 특히 화본의 분위기를 강하게 풍긴다. 이러한 공안이야기들은 우여곡절이 많아 서사성을 부각시키면서 사실적인 현실생활의 묘사로 평화의 분위기를 더했다. 또한 이 속에서 오락적 요소와 권선징악과 같은 서민적 가치관을 담아내는 평민문학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은 화본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나, 무협이야기라는 장편의 틀 속에서 현실생활에 대한 묘사가 이루어졌다는 데에 더 큰 의의가 있다.

《용도이록》은 도입부에서 ‘이묘환태자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여, 포공의 사적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것을 장편의 무협이야기와 연결하는 가운데 제21회-제28회까지 전소의 활약과 함께 포공이 해결한 공안이야기가 삽입되고 있다. 특히 제21회와 제22회의 이야기에는 방길의 아들 방곤에 대한 복수와 남협의 도움 그리고 포공의 사건해결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다. 전소는 방태사의 포공 암살 계획을 막고 ‘御猫’의 이름을 얻는다. 이후 전소는 다른 협사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제31회에서는 쌍협의 소개로 전소와 오협이 만나는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편의 단편 무협소설의 형식을 하고 있다. 제32회-제39회까지는 이러한 오의의 이야기를 통해 백옥당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백옥당이 안사산의 살인누명 사건의 해결을 돕는 이야기를 다룬다. 제40회-제57회까지 백옥당과 전소의 대결이 전개되면서 백옥당의 ‘삼보’ 절취 사건, 노방의 엄기 살해 사

24) 魯迅 著, 앞의 책, 278쪽.

건, 백옥당의 전소 감금 사건 등을 삽입하였다. 이후 제60회-제68회까지 한창과 장평 등 협사와 花沖의 대결을 묘사하는 ‘화충 사건’이 전개되는 가운데 동시에 또 양양왕과 관련된 巧姐 유괴 사건이 삽입된다. 그 다음으로 제69회-제70회에는 또 한명의 주요 협사 인물인 북협이 등장하고, 秦昌과 璧蟾의 사건을 통해 북협의 재주와 금공의 사건해결 능력을 부각시켰다. 제71회-제87회에서는 북협의 활약과 함께 倪繼祖의 부친인 ‘倪仁이 살해된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해결과정이 전개된다. 예인은 난을 피해 태주로 가던 도중 무뢰배 도종·賀豹·楊芳의 배를 타게 되었다가 도종과 하표에게 살해당한다. 하표가 이씨를 겁탈하려 하자, 이씨는 갓난 아들을 숨겨두고 양방의 도움으로 白衣庵으로 피신한다. 예계조는 예태공의 양자가 되고, 진사에 급제해 태수가 된다. 도적 도종과 하표는 관에 쫓기는 신세가 된다. 또 예태수-협객 집단과 마조현 집단의 대결이 전개되는 가운데, ‘朱煥章의 무고 사건’이 삽입되고, 또 ‘북협의 무고 사건’이 삽입된다. 대리시 五堂會審을 거치면서 북협의 무고가 밝혀지고, 마강과 마조현은 참형을 당한다. 도적 하표는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고, 주환장은 진사를 제수 받는다. 제84회에서 예인의 사건은 도종에 대한 처벌을 제외하고 거의 종결된다. 제73회에서 도종은 도망가서 이름을 요성으로 바꾸고 마강의 수하가 되었다가, 제87회에서 도종은 애호를 해치려다 장평에게 잡혀 결국 작두 아래 처형됨으로써 예인 사건이 완벽하게 마무리 된다.

이러한 공안이야기는 긴밀한 구조와 흥미롭고 극적 요소가 강한 스토리 및 사실적이고 섬세한 세부묘사 등을 통해, 시민 생활의 냄새가 짙게 배인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용도이록》이 이전 송·원·명의 무협류 백화 단편소설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용도이록》이 제21회 이후 협사들의 이야기를 골간으로 공안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용도이록》이 송·원·명 무협류 백화 단편소설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장편화를 완성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용도이록》의 새로운 발전에 있어 또 하나의 특징은 장편의 무협이야

기 속에 삽입되어 있는 혼인이야기이다. 무협이야기 중 혼인이야기는 무협을 제재로 한 송·원·명 백화 단편소설의 전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鄭節使立功新臂弓》(《醒世恒言》 제31권)은 나엽의 《취옹담록》에 수록된 《紅蜘蛛》를 개작한 것으로<sup>25)</sup>, 무협요소와 신괴요소가 결합되어 영웅인물의 발적변태를 다루는 과정에서 鄭信이 日霞仙子和 만나 일남일녀를 낳고 신비공을 얻게 되는 혼인이야기도 내포하고 있다.<sup>26)</sup> 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서사년 선생은 송·명 화본소설의 무협류 이야기의 7요소 중 하나로 ‘무협-혼인 이야기’를 제시하였다.<sup>27)</sup> 《용도이록》에도 무협이야기의 전개 속에서 여러 편의 혼인이야기가 등장한다.

《용도이록》 제71회-제84회에는 예태수 예계조와 마조현 대결을 골간으로 중간 중간에 예태수와 주정숙의 ‘혼인 미담(一段佳話)’을 삽입하고 있다. 태수가 된 예계조가 마강 무리에 의해 감금되었다가 효렴공의 딸 주정숙의 도움을 받아 탈출한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주정숙은 예태수에게 부친 주환장이 준 연화를 증표로 준다. 이 연화는 주환장이 예태수 부친의 집에서 발견한 것으로 두 사람의 인연을 이어주는 매개이다. 주정숙은 방초에게 붙잡혀 가다가 복협의 도움으로 살아난 후 우여곡절 끝에 예태수를 다시 만나 정혼을 하게 된다. 제84회에서 예태수와 마조현의 대결이 종결되면서, 예태수와 주정숙은 마침내 혼사를 마무리한다. 이처럼 예태수와 주정숙의 혼인이야기는 예태수를 중심축으로 한 협사와 마조현 일당의 대결을 다룬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삽입되어 있다.

《용도이록》 제87회-제101회까지는 ‘臥虎溝의 협객이야기’와 우여곡절이 많은 施俊의 혼인이야기가 서로 얽히며 전개된다. 제87회에서는 도중에 대한 처결을 시작으로, 장평이 米三과 米七의 배에서 해를 당한 양양

25) 박명진, 앞의 논문, 85쪽.

26) 박명진, 같은 논문, 90-91쪽.

27) 서사년은 이 부류 작품의 대표적인 예로 《碾玉觀音》, 《馮玉蘭團圓》, 《鬧繁樓多情周勝仙》, 《同窓友人假作眞女秀才移花接木》, 《巧妓佐夫成名》, 《郭挺之榜前認子》, 《乞巧婦重配鸞儔》, 《盧夢仙江上尋妻》 등의 작품을 들었다. 徐斯年 著, 앞의 책, 72쪽.

왕의 堂官인 雷莢의 부친 雷震을 구한 이야기와 어부들의 공격을 받게 된 애호를 도와준 시준의 이야기가 서술된다. 시준의 부친 施喬는 시준을 금휘의 딸 牧丹과 혼인시키기 위해 아들을 금휘의 집으로 보낸다. 그런데 두 사람의 혼인은 하인 錦箋과 佳蕙가 개입하면서 ‘물결이 요동치고(生起波瀾)’,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天翻地覆)’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금휘의 첩 巧娘의 모함으로 모란은 가혜와 옷을 바꿔입고 외삼촌의 집으로 가게 되고, 도중에 도적들의 배에서 해를 당한다. 가혜는 마침 長沙太守로 부임해 가던 금휘의 친구 邵邦傑에 의해 구조를 받는다. 가혜는 소방걸을 따라 가고, 모란은 張立 부부에 의해 구조되어 그들의 의붓딸이 된다. 또 모란을 노리던 남효의 수하 葛瑤明의 사건으로 애호는 沙龍 부녀를 알게 된다. 금휘는 양양태수가 되고, 장평은 교양의 정부 李平山을 만난다. 장평이 고의로 교양과 이평산의 불륜행각을 폭로하자, 금휘는 분노하여 첩 교양을 죽인다. 한편 이평산은 도적 翁大 등에 의해 살해된다. 이후 장평은 모란 등을 해쳤던 용대 일당을 죽이고 와호구로 가서 사룡을 만난다. 이러한 이야기에서는 선악의 결과가 분명한 권선징악의 관념이 그대로 드러난다. 제96회에서 시준은 鄭申 살인 사건 때문에 무고를 당해 송사에 휘말리게 된다. 소방걸의 도움으로 시준은 누명을 벗게 되고, 소방걸은 가혜를 시준과 혼인시키고자 한다. 제97회에서는 사룡의 딸 鳳仙·秋葵 자매와 남효의 대결, 복협과 남효의 대결이 벌어진다. 협녀·협사들이 남효와의 대결에게 큰 성과를 거둔 후, 정조혜가 남효의 근거지를 평정한다. 금태수는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고 딸 모란을 다시 받아들인다. 제99회에서 애호와 봉선의 혼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제101회에서 시준과 모란의 혼사가 결실을 맺는다. 여기에서 臥虎溝의 무협이야기 속에 다양한 혼인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얽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용도이록》에서의 혼인이야기는 장편의 무협이야기 속에서 무협이야기와 얽히면서 전체 이야기의 재미를 더해 주고 전통을 이은 무협소설의 색채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한편 《용도이록》이 혼인 이야기를 장편의 무협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삽입시킨 것은 계승 속에서의 발

전이라고 평할 수 있다.

요약해 보면, 《용도이록》은 《삼협오의》 계열소설의 첫 번째 장편소설로, 이미 고전 무협소설의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용도이록》이 송·원 소설화본 중 무협제재의 작품들의 창작특징을 계승하고 있으며, 또 한 걸음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무협이야기에 더 큰 비중을 둔 ‘공안-무협’제재의 소설임을 알 수 있다.

## V. 結 論

‘포공-협객의 이야기’는 독특한 서사모식을 바탕으로 중국문학의 영역에서 긴 생명력을 보여주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야기이다. ‘포공-협객의 이야기’는 청대에 이르러 설장의 영역에서 소설의 영역으로 옮겨오게 되었는데, 장편소설의 형식으로 완성된 첫 번째 소설작품이 바로 《용도이록》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제재유형 특징에 대한 분석은 《삼협오의》 계열소설 전반의 유형연구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재유형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용도이록》의 ‘포공-협객의 이야기’는 제21회 이후 무협소설의 형태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노신은 ‘청의 협의소설과 공안(淸之俠義小說及公案)’이라는 제목 아래 《삼협오의》를 협의소설로 다루었다. 그는 《삼협오의》가 “비록 그 의도가 용협지사가 시골과 도시를 돌아다니며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불의를 제거하고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우는 일들을 서술하는데 있지만, 반드시 이름난 대신이나 뛰어난 관리를 중추로 하여 모든 호걸을 이끌게 하였으니…….(雖意在敍勇俠之士, 游行村市, 安良除暴, 爲國立功, 而必以一名臣大吏爲中樞, 以總領一切豪俊…….)”<sup>28)</sup>라고 하였다. 이것은 《삼협오의》가 무협에 비중

28) 魯迅 著, 앞의 책, 272쪽.

을 두고 ‘공안-무협’ 제재유형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노신의 이러한 평가는 이미 《용도이록》의 창작특징과도 잘 부합되고 있다. 따라서 《용도이록》은 무협에 비중을 둔 ‘공안-무협’ 제재유형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용도이록》의 ‘공안-무협’ 제재유형 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용도이록》의 제재유형은 발적변태를 담은 영웅 이야기와 공안 요소를 흡수한 무협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송·원 소설화본 중 무협류 소설화본의 창작 특징을 계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용도이록》은 송·원·명의 ‘평화’를 계승하면서, 한편으로 정치 집단 간의 대립을 중심으로 장편 ‘강사’의 틀을 형성하고 장편의 무협이야기 속에서 공안·혼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삽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편화를 통한 새로운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할 수 있다.

#### <參考文獻>

- [明] 馮夢龍 編·許政揚 校注, 《喻世明言》, 人民文學出版社, 1994.  
[清] 石玉崑 述, 《龍圖耳錄》, 上海古籍出版社, 1981.  
[清] 石玉崑 述·王述 交點, 《三俠五義》, 人民文學出版社, 2001.  
[清] 石玉崑 述·俞樾 重編·林山 校訂, 《七俠五義》, 寶文堂書店, 1980.  
魯迅 著, 《魯迅全集》, 人民文學出版社, 1996.  
孫楷第 著, 《中國通俗小說書目》, 作家出版社, 1957.  
胡適 著, 《胡適古典文學研究論集》, 上海古籍出版社, 1988.  
侯忠義 著, 《三俠五義系列小說》, 遼寧教育出版社, 1993.  
齊裕焜 主編, 《中國古代小說演變史》, 敦煌文藝出版社, 1994.  
徐斯年 著, 《俠的蹤迹—中國武俠小說史論》, 人民文學出版社, 1995.  
曹亦冰 著, 《俠義公案小說史》, 浙江古籍出版社, 1998.  
魯德才 著, 《三俠五義》, 春風文藝出版社, 1999.

- 苗懷明, <《三俠五義》成書新考>, 《明清小說研究》 1998年 第3期.
- 黃克, <娛心 勸善—《忠烈俠義傳》的再認識>, 《文史知識》 2006年 第1期.
- 程毅中, <從《三俠五義》、《小五義》看清代的話本小說>,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 2006年 第2期.
- 侯忠義·王健椿, <近代俠義、公案小說“合流”說質疑>, 《明清小說研究》 2006年 第4期.
- 王湘華, <《三俠五義》版本流變>, 《古典文學知識》 2006年 第4期.
- 魯德才, <四種《三俠五義》說唱本與《龍圖耳錄》的異同辨證>, 《文學遺產》 2007年 第2期.
- 汪燕崗, <試析清代北京通俗小說的出版與說唱業的關係—以俠義公案小說的形成為例>, 《北京社會科學》 2012年 第5期.
- 박명진, <宋元 小說話本の 公案·俠義 類型>, 《중국소설논총》 제20집, 2004.
- 유경철, <《삼협오의》 연구: 무협소설 장르의 전(前) 단계(段階)적 특징을 중심으로>, 《중국어학보》 제61집, 2010.
- 박명진, <《龍圖耳錄》의 소설화 과정과 창작 특징>, 《동아인문학》 제23집, 2012.

### <中文提要>

《龍圖耳錄》是第一部具有“包公—俠客故事”模式的章回體小說作品。在清代的“包公—俠客故事”，最早是在說唱領域形成的，後來轉換為白話小說作品，最終形成了以《三俠五義》為代表的一系列的作品群。因為《龍圖耳錄》是以“包公—俠客故事”為題材的第一部長篇小說，所以本論文將分析《龍圖耳錄》的題材類型，以便對《三俠五義》系列小說的題材類型研究，提供一定的基礎資料。從題材類型的角度看，《龍圖耳錄》從第21回開始，俱備典型的武

俠小說的形態，並形成了更側重於武俠因素的“公案-武俠”題材類型。《龍圖耳錄》的“公案-武俠”題材類型具有如下特點：《龍圖耳錄》繼承了描述發迹變泰、吸收公案因素的宋元武俠類小說話本的特點。與此同時，《龍圖耳錄》以“講史”為大框架，首尾貫通，在敘述長篇武俠故事中又插入公案、婚姻故事，構成完整的長篇小說，從而取得了題材類型上的發展。由此可見，《龍圖耳錄》既繼承了宋元武俠類小說話本的創作特點，又展現出更側重於武俠題材的“公案-武俠”題材類型的特徵。

Key Words : 《龍圖耳錄》(Longtu'erlu), ‘公案-武俠’(Gong'an-Wuxia), 題材類型(Type of Materials), 《三俠五義》(Sanxiawuyi)

